

# 尹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野 “반성은 없고 변명만”

## 尹 대통령 총선 후 첫 육성 입장 “국익 위했지만 국민 기대 못미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육성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9년 만에 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불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이고 민심을 챙기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며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가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 주요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불통 정치 선언...국민이 사과해야하나”

### 대통령 발언 야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에 대해 “조금이라도 국정의 변화를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불통의 국정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 기초를 바꾸려는 국민의 존엄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면서도 야당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시면 국민

은 더 힘들어지고, 국정 운영에도 더 험한 일이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주제 모두발언이 아니라 국민·언론인과 대화했어야 한다”며 총선 결과와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형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답이 없다’ 싫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걸어온 길, 가려는 길이 모두 틀렸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여전히 ‘내가 맞다’고 우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심지어는 국민을 향해 화를 낸다”며 “‘역대급’ 심판에도 변하지 않는 대통령에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이 물라배서 죄송하다”며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물가 관리를 잘한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대파소’를 벌였나”라며 “국민은 국정 방향이 잘못됐다고 정권을 심판했는데 대통령이 정부 탓을 하니 잘못된 진단에 올바른 처방이 나올 리 없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와 회담 열려있다”

### “국회 구성 후 적절한 시점과 여당 지도부 미비 감안해야”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 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과 소통할 때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부 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

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단독회담을 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단독회담보다는 여당과 다른 야당의 대표들까지 함께 만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 대표들과 아직 정식 회담을 한 적이 없다. 3·1절 기념식 등 공식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는 정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유일하게 지난해 10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서 비공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윤 대통령과 여야 3당 지도부 간 회동이 추진됐다가 결

국 불발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단독회담에 대해서는 직접 선을 그은 적도 있다.

영수회담이란 형식이 사라진 이후로도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간 단독회담이 성사된 사례는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4월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간 비공개 단독회담이 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59일 만인 2008년 4월 24일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만난 데 이어 임기 중 세 차례에 걸쳐 야당 대표와 단독 회담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46일 만인 2013년 4월 12일 문희상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났다. 다만 임기 중에는 여야 3자 회동을 주로 진행했고,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